

소셜 미디어 사용에서 동기부여가 사이버 표절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규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강소라, 한수진*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The Effect of Motivation on Cyber Plagiarism in Using Social Media: The Focus of Subjective Norm's moderating Effect

Sora Kang, Su Jin Han*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seo University

요약 컴퓨터 기반의 정보기술의 발달은 소셜 미디어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유발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정보의 생성, 공유 및 전파 등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사이버 상에서의 비윤리적 행동 또한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동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표절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동기부여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개인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에 따라 사이버 비윤리 의도에는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들의 관계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그 강도가 조절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또한 사이버 비윤리 의도는 비윤리 행동 중 사이버 표절행위를 유발할 것이 기대하였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564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첫째,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개인의 동기요인 중에서 내재적 동기는 사이버 비윤리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외재적 동기는 비윤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 비윤리 의도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타인의 글이나 그림, 영상 등을 표절하는 행위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향 변수인 주관적 규범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주관적 규범은 외재적 동기와 사이버 비윤리 의도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computer-based information technology has led to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of social media which have two sides; a positive one such as the generat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and a negative one which includes cyber plagiarism and cyber bullying.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which factors can lead to cyber plagiarism, which is the most prevalent form of unethical cyber behavior. We expected that the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for using social media would have different effects on unethical cyber intention and that this relation between motivation and cyber unethical behavior would be moderated by the subjective norm. In order to obt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individual motivation, unethical cyber intention, and cyber plagiarism, information was obtained from 564 social media users. The respondents provided details of their experiences and attitudes regarding social media usage behavior and unethical cyber behavior. The results confirmed that extrinsic motivation significantly increases unethical intention and further leads to high levels of cyber plagiarism. The subjective norm plays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extrinsic motivation and unethical cyber inten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findings are discussed,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Keywords : Social Media, Subjective Norm, Cyber Plagiarism, Intrinsic Motive, Extrinsic Motive

이 논문은 2015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5-0333)

*Corresponding Author : Su Jin Han (Hoseo University)

Tel: +82-41-560-8159 email: sjhan@hoseo.edu

Received May 13, 2016

Revised June 1, 2016

Accepted June 2, 2016

Published June 30, 2016

1. 서론

컴퓨터 기반의 정보기술 발전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인 소셜 미디어는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있다. 소셜 미디어의 발전은 보다 빠른 정보 생산, 배포, 공유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지적자산의 위협이나 저작권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동시에 유발하게 되었다[1]. 이는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하여 타인의 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활동이 개인 공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불법다운로드, 사이버 표절 등의 일탈행위에 대한 지각이 무디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2][3].

사이버상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자각 및 자정작업을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져 왔다. 2000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이버 윤리강령을 발표한 이후 네티즌 스스로 행동 강령을 만들어 익명성을 통한 타인의 권리나 인권이 침해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이버 상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학계에서도 사이버 윤리 및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윤리적 행위의 개념정의, 유형 분류 또는 현황 파악등과 같은 시작단계의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4][5][6][38-39]. 따라서 현황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 비윤리 의도 및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수준에 관한 연구들로는 개인의 윤리수준 결정은 개인의 자아개념, 대인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7]와 인지적 사회적 영향력이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8]등 매우 미흡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기-의도-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기부여이론을 기반으로 사이버 비윤리 의도 및 결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사이버 비윤리 행동 중 사이버 표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는 타인의 정보를 임의로 다운받거나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사이버 표절은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비윤리적 행동이며, 보다 심각한 것은 이를 비도덕적 행위라는 지각을 하지 못하는 행위라는 점이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표절을 유발하는 선행요인들을 검토하고 이를 줄일 수 있

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사용 동기와 사이버 비윤리 의도 및 행위 유발과정을 동기부여 이론을 토대로 실증하고자 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동기와 사이버 비윤리 의식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비윤리 의도를 줄일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소셜 미디어와 사이버 윤리

개인의 의견, 생각, 경험 등을 타인과 공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온라인 툴과 플랫폼을 의미하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사용과 몰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로서는 블로그,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스턴트 메시지,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등 매우 다양하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참여와 공유라는 것이다[40].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보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 매체들을 만들어내며 수많은 정보가 만들어지고 배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정보 교류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참여와 공유라는 메시지가 잘못 해석되어 불법복제나 사이버표절과 부정적 행태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6]. 대학생 대상의 과제표절 연구를 수행한 오은주(2013)는 358명의 대학생 응답자 중 77%가 과제표절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행위(정보 생성, 배포, 사용)에 대한 도덕적 기준과 판단을 의미하는 인터넷 윤리 혹은 사이버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상의 정보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획득하거나 변형 혹은 가공하기 용이하다[3]. 따라서 어려움 없이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타인의 권리 혹은 자산이라는 지각이 적게 된다. 둘째 사이버 공간은 집단임과 동시에 개별화된 공간이다[6]. 네트워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으나, 타인에 대한 실재감 부족으로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인식하게 된다[2][9].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부정행위가 가지는 파급

력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며, 더불어 부정적 행위에 대한 자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6].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연구들은 개념과 현황 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부족하나마 진행되어진 사이버 비윤리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문구와 박중현의 연구(2008)에서는 자아개념, 대인관계 그리고 윤리에 대한 지식수준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며[7], 문윤지(2014)의 연구에서도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규범이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10]. 기존의 연구들은 사이버 비윤리 행동 발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행동유발 의도(intention)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8].

2.2 동기부여 이론

기존 연구들은 개인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 동기부여이론(motivation theory)을 널리 사용해 왔다[41-42]. Deci(1975)은 개인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motive)를 크게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나누었다[11]. 외재적 동기란 달성한 가치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때문에 행동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내재적 동기란 외부의 강요가 아닌 행동 그 자체의 관심(interest) 때문에 행동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12]. 외재적으로 동기부여 된 사람은 보상 혹은 처벌의 회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을 하며, 경쟁이나 평가 등에 영향을 받는데, 반면 내재적으로 동기부여 된 사람은 과제에 대한 몰입, 즐거움 등의 영향을 받는다[13][14]. 내재적 동기를 구성하는 요인 중 하나인 즐거움(enjoyment)은 행동 결과의 성패와는 별도로 행동 그 자체의 즐거움이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15]. 따라서 내재적 동기가 부여된 상태는 수행한 일에 대한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에 중요성을 부여하며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기 효능감도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김유정, 강소라(2009)는 UCC 이용과 생산에 있어 내재적, 외재적 동기의 차이점을 검증하였으며[14], Lin and Lu(2011)는 SNS 사용에 있어서도 동기유형별 차이가 존재함을 검증하였다[12]. 즉,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더불어 동기 유형에 따라서 그 영향의 방향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 연구모델 및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사이버 비 윤리 의 식 및 사이버 표절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내재적, 외재적 동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부여 이론에 의하며, 개인의 행동은 이를 유발하는 동기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를 본 논문에 적용하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사이버 (비)윤리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비윤리적 행동인 사이버 표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동기유형과 비윤리적 인식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설정한 연구 모델이 [Fig.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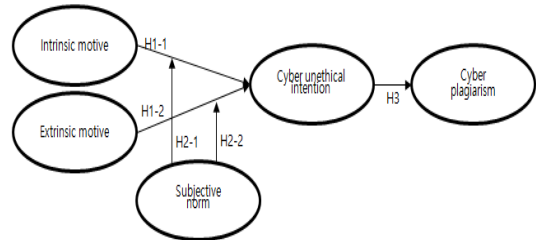


Fig. 1. Figure Model

3.2 연구가설

3.2.1 동기와 사이버 비윤리

동기부여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특정행동에 대한 동기는 행동의 의도 및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소셜 미디어사용에 있어서도 내재적 동기 및 외재적 동기는 사이버 상에서의 비윤리 의도와 더 나아가 비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외재적 동기와 학업부정행위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검증하였다[16]. 이에 관련한 초기연구인 Jordan(200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정행위와 외재적 동기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외재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학생이 내재적으로 동기 부여된 학생에 비하여 부정행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을 검증하였다[17]. Schraw et al.(2007)은 내재적으로 동기 부여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자신의 수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아 효능감이 높은 경우이기에 대한 의도가 유의하게 낮음을 설명하였다[18].

내재적 동기는 수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즐거움이

나 흥미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일 자체에 몰입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13]. 반면, 외재적으로 동기부여 된 경우는 수행된 결과에서 기인하는 외재적 보상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하게 되며, 일의 수행과정에 대한 도덕성과는 무관하게 일의 성과를 높이기 집중하게 될 것이다[19][20]. 이러한 동기 특성은 소셜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며,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셜 미디어 사용 자체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몰입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이버 비윤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 반면에 외재적 동기가 강한 경우는 과정보다는 의도한 결과에 의하여 동기 부여되는 경우로 사이버상에서의 비윤리는 증가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 내재적 동기가 강할수록 사이버 비윤리성은 감소할 것이다.

가설 1-2. 외재적 동기가 강할수록 사이버 비윤리성은 증가할 것이다.

3.2.2 주관적 규범의 조절효과

주관적 규범은 해당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려할 때, 그 행동에 대하여 타인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21]. 즉 자신의 준거집단에 의하여 해당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된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해당 행동을 기대하는 바에 대한 개개인의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22]. 또한 따라서 이전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검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23][24][25]. 소셜 미디어 사용에 있어 주관적 규범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동기와 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강화시킬 것이라 예측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규범은 준거집단으로부터의 해당 행동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무언가를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의도로 가는 과정을 강화할 것이라 기대된다[26].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 하게 될 것이며, 이는 내재적 동기와 사이버 비윤리 의도와와의 부의 관계를 보다 강화시킬 것이라 기대한다. 준거집단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정당성으로 인지하게 될 것이다[27]. 따라서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의 의도를 보

다 강화시키며, 행동으로 발현되는 부분을 강화시키게 된다[28]. 따라서 이러한 인지는,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강화된 흥미는 사용 결과가 아닌 사용하는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비윤리 의도와와의 부의 관계는 보다 강화될 것이다. 반면에 외재적 동기와 사이버 비윤리성과의 관계는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압력으로 인하여 더욱 강화될 것이라 기대되는 데 이는 결과에 대한 동기가 사회적 압력과 결합되어 사이버 비윤리성은 과정이 아닌 결과를 보다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 형성되어 사이버 비윤리 의도는 보다 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가설 2-1. 소셜 미디어 사용에 있어 주관적 규범은 내재적 동기와 사이버 비윤리성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2-2. 소셜 미디어 사용에 있어 주관적 규범은 외재적 동기와 사이버 비윤리성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2.3 사이버 비윤리성과 사이버 표절

인터넷 공간에서 나타나는 비윤리적 행동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표절이다[29].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글을 허락 없이 베껴거나, 자기 것인냥 도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이버 상에서의 표절은 오프라인에서보다 보다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정보의 공개 및 공유라는 측면이 무형자산에 대한 저작권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게 되며, 상대적으로 표절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넷 공간에는 무수한 정보들이 존재하며,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매우 용이하다. 실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절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의 학생들 중 80% 이상이 사이버 표절에 대한 경험을 언급하였다[30]. 범죄행위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범죄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얼마나 주어져 있는가에 따라 범죄 행위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16]. 즉, 많은 정보가 존재하며, 아직까지 타인의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명확한 제재가 지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이버 비윤리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표절행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Lickona(1991)은 윤리성 인지(도덕적 인식, 윤리적

가치인식), 도덕적 감정(양심, 자긍심 등) 그리고 도덕적 행동간에는 상호 연관이 되어있음을 주장하였다[31]. 실제 이전 연구들에서는 비윤리적 행동인 사이버표절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태도나 윤리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32][3]. 따라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소셜 미디어 사용에 있어 사이버 비윤리의도가 높을수록 사이버 표절은 증가할 것이다.

4. 분석결과

4.1 변수측정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총 5개의 연구변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독립변수로는 동기(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조절변수로 사회적 영향(주관적 규범)을 선정하였으며, 매개변수로서 사이버 비윤리성을 그리고 종속변수로 사이버 표절을 설정하였다. 내재적 동기 및 외재적 동기는 Amabile, Tighe, Hill, and Hennessey(1994)의 연구를 바탕으로 14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33], 사회적 영향변수인 주관적 규범은 Venkatesh and Davis (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2항목으로[34], 사이버 비윤리성은 Tracy, Kopp, and Hardsty(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6항목으로 측정하였다[35].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사이버 표절은 Cheon and Yoon(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2항목으로 측정하였다[36]. 본 연구에서는 위의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30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확인, 수정받아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이 모든 연구변수에 대한 설문은 리커트(Likert) 7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약 3달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지를 발송한 1주 이상 경과하였으나 설문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면접하거나 전화 및 메일을 통해 신속한 설문협조를 부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총 564부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특성을 보면 10대에서 40대까지 이며, 이중 20대가 40.2%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60.1%였으며, 학력에서는 중고등학교 재학부터 대학원 재학까지 나타났는데, 이중 대학교 졸업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2 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Windows SPSS 20의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전통계 분석과 기초통계분석을 시행하였고, AMOS 18.0을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변수들의 항목들에 대한 chronbach's α 계수는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도 확보되었다 (CMIN/DF=2.954, CFI=.931, TLI=.920, RMSEA =.05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는 아래 [Tabl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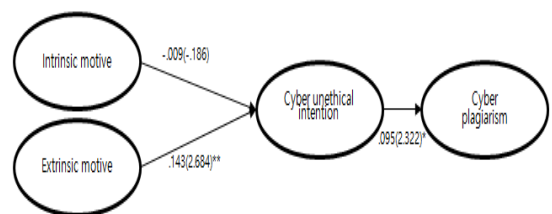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어 구조방정식 연구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바람직한 적합도 지수를 충족시켜 본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CMIN/DF = 3.932, TLI =.901 CFI =.886, RMSEA=.067).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Mean	S.D.	1	2	3	4
1. Intrinsic motive	4.95	1.06				
2. Extrinsic motive	4.40	.99	.485**			
3. Subjective norm	3.11	1.55	.216**	.261**		
4. Unethical intention	2.35	1.19	.052	.117**	.203**	
5. Plagiarism	1.85	1.26	.107**	.120**	.384**	.095*

*P <0.1, *P<.05, **P<.01, ***P<.001

각 경로의 분석결과를 보면, 내재적 동기는 사이버 비윤리성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외재적 동기는 사이버 비윤리성에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은 지지되지 않았지만,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또한 사이버 비윤리성은 사이버 표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서 가설3도 지지되었다.



*p<0.05; **p<0.01; *** p<0.001

Fig. 2. Research Result

다음으로 사회적 영향변수인 주관적 규범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Ping(2008)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37].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주관적 규범은 내재적 동기와 사이버 비윤리간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외재적 동기와 사이버 비윤리 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Table 2. Moderating Effect

Variables	Model 1	Model 2
Intrinsic motive(A)	-.059(-1.296)	-.056(-.819)
Extrinsic motive(B)	.108(2.096)*	.192(4.197)***
Subjective norm (C)	.229(4.746)***	.508(2.747)**
A * C		.058(.980)
B * C		.445(2.734)**
	CMIN/DF=4.530, C F I = 8 8 6 , T L I = . 8 3 7 , RMSEA=.075	CMIN/DF=4.105, CFI=898, TLI=.860, RMSEA=.068

*P <0.1, *P<.05, **P<.01, ***P<.001

5. 결론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사용에서 개인의 동기가 사이버 비윤리성 및 표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영향과 개인의 동기간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이 개인의 비윤리성과 표절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개인의 동기요인 중에서 내재적 동기는 사이버 비윤리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외재적 동기는 비윤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 비윤리의도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타인의 글이나 그림, 영상 등을 표절하는 행위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향 변수인 주관적 규범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주관적 규범은 외재적 동기와 사이버 비윤리의도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준다. 첫째, 동기부여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한 동기와 사이버 비윤리 의도와와의 관계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에 있어 행위결과나 외재적 보상등에 초점을 둔 동기는 비윤리적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부정행위를 연구한 Kauffman and Young(2015)와 동일한 결과이다[16]. 반면 내재적 동기는 사이버 비윤리 의도를 유의하게 줄이지는 못한 결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동기부여 이론인 민쯔버그의 2요인 이론과 연관하여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떤 특성은 만족(긍정적 결과)을 유발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어떤 특성은 불만족(부정적 결과)을 줄이는 것과 관련하여 동기가 부여됨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본 연구결과와 연관하여 설명하면, 내재적 동기는 긍정적 행위 및 의도를 유발하는 동기요인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하여 본다. 즉, 내재적 동기를 윤리의식 및 의도와 관련성을 연구한다면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연구결과(내재적 동기와 윤리의식간의 정의관계)를 도출할 것이라 기대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와 윤리의식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이버 비윤리 행동은 비윤리 의도에서 출발하게 됨으로, 비윤리적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교환 장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사이버 비윤리 행동 또한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과 윤리행동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이버 비윤리 의도 및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동기만을 파악하였는데, 다양한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개인 수준의 변수들로서는 개인의 성격(big 5, 자존감이나 직무 효능감 등)이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도 고려할 요인들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사이버교육이나 법적 통제장치 등과 같이 사회적 제도가 비윤리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는 것도 실무적 시사점을 보다 풍부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둘째, 사이버 비윤리 행위는 사이버 불링, 사이버 표절, 해킹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표절에 한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향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비윤리 행위 및 각 행위별 영향요인 파악도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References

- [1] Jackson, L.A., Zhao, Y., Qiu, W., Kolenic, A., Fitzgerald, H.E., Harold, R., & von Eye, A. "Morality in Cyberspace: A Comparison of Chinese and US Youth's Beliefs about Acceptable Online Behavior," In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Proceedings of the 41st Annual (pp. 290-290). IEEE. January, 2008.
DOI: <http://dx.doi.org/10.1109/hicss.2008.324>
- [2] Kim, K.H., Kim, Y.U., "Computer-Aided Education : Factors That Influence Digital Contents Piracy"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16(1), 63-71. 2013.
- [3] Oh, E., "Exploring the Information Ethics and Plagiarism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9(3), 163-184. 2013.
- [4] Jung, I.S., "Ethical judgements and behaviors: Applying a multidimensional ethics scale to measuring ICT ethics of college students," Computers and Education, 53, 940-949, 2009.
DOI: <http://dx.doi.org/10.1016/j.compedu.2009.05.011>
- [5] Taherdoost, H., Sahibuddin, S., Namayandeh, M., Jalaliyoon, N., "Propose an educational plan for computer ethics and information security.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8, 815-819, 2011.
DOI: <http://dx.doi.org/10.1016/j.sbspro.2011.11.149>
- [6] Lee, N. "Study on effect of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on the information ethics consciousness of university students" Sungkyunkwan University, College of Humanities Master's thesis. 2013.
- [7] Kim, M.G., Park, J.H.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Internet Ethics and Its Relationship with Internet Violence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33, 65-91, 2008
- [8] Yamamoto, J., Ananou, S. "Humanity in the Digital Age: Cognitive, Social, Emotional, and Ethical Implica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Technology, 6(1). 1-18, 2015.
- [9] Taherdoost, H., Sahibuddin, S., Namayandeh, M., Jalaliyoon, N., "Propose an educational plan for computer ethics and information security,"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8, 815-819, 2011.
DOI: <http://dx.doi.org/10.1016/j.sbspro.2011.11.149>
- [10] Moon, Y. "The Effect of Us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Influence on Cyberethics and Usage in Web 2.0,"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 Reviw, 33(2), 101-118, 2014.
- [11] Deci, E.L., Ryan, R.M., Intrinsic motivation. John Wiley & Sons, Inc., 1975.
DOI: <http://dx.doi.org/10.1007/978-1-4613-4446-9>
- [12] Lin, K.Y., Lu, H.P., "Why people use social networking sites: An empirical study integrating network externalizes and motivation theor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3), 1152-1161, 2011.
DOI: <http://dx.doi.org/10.1016/j.chb.2010.12.009>
- [13] Amabile, T.M., Hill, K.G., Hennessey, B.A., Tighe, E.M. The Work Preference Inventory: assessing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5), 950-961, 1994.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66.5.950>
- [14] Kim, Y.J., Kim, S.K.,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in UCC Usage and Creation - Focused on Korea and U.S.A.,"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9(1), 223-237, 2009.
DOI: <http://dx.doi.org/10.5392/JKCA.2009.9.1.223>
- [15] Zhang, S.X., Olfman, L., Ractham, P., "Designing ePortfolio 2.0: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Web 2.0 Services with ePortfolio Systems for Enhancing Users' Learning,"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ducation, 18(2), 203-214, 2007.
- [16] Kauffman, Y., Young, M. F., "Digital plagiarism: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 of instructional goals and copy-and-paste affordance," Computers & Education, 83, 44-56, 2015.
DOI: <http://dx.doi.org/10.1016/j.compedu.2014.12.016>
- [17] Jordan, A.E., "College student cheating: The role of motivation, perceived norms, attitudes, and knowledge of institutional policy," Ethics & Behavior, 11(3), 233-247, 2001.
DOI: http://dx.doi.org/10.1207/S15327019EB1103_3
- [18] Schraw, G., Olafson, L., Kuch, F., Lehman, T., Lehman, B.S., McCrudden, M.T., Interests and academic cheating. In E. Anderman, & T. Murdock (Eds.), The psychology of academic cheating (pp. 59e85). Amsterdam: Academic Press, 2007.
DOI: <http://dx.doi.org/10.1016/B978-012372541-7/50005-X>
- [19] Salancik, G.R., Pfeffer, J., "An examination of need-satisfaction models of job attitud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7-456, 1977.
- [20] Go, S.Y., "Effects of Performance - Contingent Rewards Competition and Feedback on Intrinsic Motivation," Business Research 31(2), 509-528, 2002.
- [21] Fishbein, M. Ajzen, I., Belief, attitudes,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ssachussets: Addison-Wesley, 1975.
- [22] Yoo, Y., Lee, K.K., "The Effects of Flow and Social Influences on Use Intention in Online Community" Korea Business Review 2(1), 1-24, 2009.
- [23] Amin, H., Ramayah, T., "SMS banking: Explaining the effects of attitude, social norms and perceived security and privacy," The Electron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41, 2010
- [24] Dickinger, A., Kleijnen, M. "Coupons going wireless: Determinants of consumer intentions to redeem mobile coupons,"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22(3), 23-39, 2008.
DOI: <http://dx.doi.org/10.1002/dir.20115>
- [25] Nysveen, H., Pedersen, P.E., Thorbjørnsen, H., "Intentions to use mobile services: Antecedents and cross-service comparison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33(3), 330-346, 2005.
DOI: <http://dx.doi.org/10.1177/0092070305276149>
- [26] Pookulangara, S., Koesler, K., "Cultural influence on consumers' usage of social networks and its' impact on online purchase intentions,"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18(4), 348-354, 2011.
DOI: <http://dx.doi.org/10.1016/j.jretconser.2011.03.003>

- [27] Choi, G., Chung, H., "Apply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o social networking sites (SNS): Impact of subjective norm and social capital on the acceptance of SN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29(10), 619-628, 2013.
DOI: <http://dx.doi.org/10.1080/10447318.2012.756333>
- [28] Salahshour, M., Dahlan, H.M., Iahad, N.A., Nilashi, M., Ibrahim, O., "Using a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Approach for Assessing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Network Sites Intention to Use," *Journal of Soft Computing and Decision Support Systems*, 2(3), 20-28, 2015.
- [29] Chung, S.K., "Legal Recommendations for the Increased Regulation of Plagiarism" *Study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16(1), 137-188. 2010.
- [30] Ananou, S.T., "Academic honesty in the digital age,"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Retrieved on 18 June 2014 from <http://pqdtopen.proquest.com/doc/1524251772.html?FMT=AI>
- [31] Lickona, T. *Educating for Character : How Our Schools Can Teach Respectand Responsibility*. New York: Bantam Books, 1991.
- [32] Cheat, T.T., Ali, W.Z.W., Ismail, H., Persepsi Palajar Universiti Terhadap Faktor yang Mempengaruhi Plagiat melalui Penggunaan Teknologi Maklumat dan Komunikasi (TMK). *Sains Humanika*, 57(1), 2011.
- [33] Amabile, T.M., Hill, K.G., Hennessey, B.A., Tighe, E.M., "The Work Preference Inventory: assessing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5), 950-961, 1994.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66.5.950>
- [34] Venkatesh, V., Davis, F.D.,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46(2), 186 - 204, 2000.
DOI: <http://dx.doi.org/10.1287/mnsc.46.2.186.11926>
- [35] Tracy, A.S., Kopp, S.W., Hardsty, D.M.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ethical judgment and copying behavior at work," *Journal of Business Ethics*, 55(1), 61-70, 2004.
DOI: <http://dx.doi.org/10.1007/s10551-004-1779-z>
- [36] Cheon, H.M., Yoon, J.S., "Web2.0 and UCC: Evolutionary tendency and strategic implications",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007 Summer Conference Proceeding, 15(1), 91-98, 2007.
- [37] Ping, R.A. "Estimating endogenous interactions." [on-line paper] <http://www.wright.edu/~robert.ping/categorical.doc>, 2008.
- [38] D.-H. Jung, C.-H. Jung,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Influence and Self-Determination Affecting User's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Intention in Mobile Social Network Game(S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2, pp. 45-52, Feb.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21>
- [39] S.H. Song, S.H. Hwang, Y.H. Lee, H.-K. Lee, K.-S. Han, J.-B. Kim, "The Stock Trading Model Using Social Big Data Analysi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3, pp. 91-100, Mar.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3.32>
- [40] H.K. Gee, H.K. Choi, "The Effect of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y of Use on the Us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among Korean Adult Consumer,"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5, No. 3, pp. 11-18, June 2015.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06.06>
- [41] I.-S. Choi, "A Longitudinal Study on Motivation Semester of K University : Focused on College of Busines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4 No. 2, pp. 247-256, Dec. 2014.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4.12.24>
- [42] J. Park, H.-J. Chang, H.-K. Lee, "The Study on Sport Motivation, Flow, and Sport Continuance of Leisure Sport Participa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4 No. 2, pp. 321-330, Dec 2014.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4.12.19>

강 소 라(Sora Kang)

[정회원]



- 199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창업학부 교수

<관심분야>

정보기술의 사용과 성과, 조직정치와 지식경영, GSS, 개인과 조직의 UCC 활용 등

한 수 진(Su Jin Han)

[정회원]



- 199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1998년 1월 ~ 2001년 12월 : IBS 컨설팅, 선임컨설턴트(조직진단 및 설계)
- 2006년 8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감정노동, 사회적 네트워크